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

심연수 · 우희선¹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 ¹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Youn-Soo Shim · Hee-Sun Woo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nmoon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ee-Sun Wo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72 Onjeong Street, Gweonseon-gu, Suwon City, Gyeonggi-do, 441-748, Korea. Tel : +82-31-290-8123, Fax : +82-31-290-8142, E-mail : goseychell@hanmail.net

Received: 20 October 2014; Revised: 20 January 2015; Accepted: 6 April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ed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and happy life.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 Likert 5 scale was completed by the dental hygienists in Korea through online report or written report from December, 2012 to June, 2013. Except incomplete answers, 200 data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0 questions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for old ages, 9 questions of physical preparation, and 9 questions of emotional preparation. Cronbach's alpha of old age preparation and awareness of old age was 0.634 in the study. Cronbach's alpha was 0.709 and 0.757 in physical preparation and emotional preparation, respectively. The final analyses of 200 copies were conducted using SPSS 11.5 software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

Results: Awareness toward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was 3.72 points, physical preparation was 2.94 points, and emotional preparation was 2.91 points. Awareness toward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sh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 dat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Physical preparation was closely related to birth dat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the workplace. Emotional preparation was closely related to birth dat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the workplac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preparation for old age of dental hygienists was very important and the preparation must be connected with the social welfare policy.

Key Words: dental hygienists, emotional preparation, old age, physical preparation

색인: 노후,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치과위생사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2005년 1.08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29명, 2013년 1.18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¹⁾. 2017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로 진입하고, 유소년(0~14세) 인구의 감소로 2017년경에는 인구역전 현상도 발생가능하다고 한다²⁾. 또한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변화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상대적, 절대적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에서 늙어 간다는 것에 대해 점차 관

Copyright©2015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심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장수를 누리고 싶어 했던 소망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늙어가고,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³⁾.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복지 분야의 관심증대에 따른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 첨단의료기기의 개발과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및 보건의학의 향상으로 한 국민의 평균수명은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⁴⁾.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들 또한 노년기에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및 건강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풍성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 보장 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⁵⁾.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송 등⁶⁾의 우리나라 개원치과 의사들의 은퇴 및 노후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와 김 등⁷⁾의 수도권지역 치과 의사의 노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고되었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는 한 연구들은 김 등⁸⁾의 일부 치과위생사의 퇴직 후 노년 생활 및 직업에 관한 인식과 김 등⁹⁾의 치과위생사의 노후 생활 준비 등이 최근 보고되어 지고 있다. 또한, 김¹⁰⁾의 박사논문으로 치과 의료 인력의 노후 생활 준비와 은퇴계획의 연구에는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노후에 대해 보고되어 지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상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7개월 동안) 지역적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치과의원 및 병원에 수석치과위생사(실장)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자기 기

입 방식으로 설문지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총 300부 중 성실히 응답한 총 2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

2. 연구도구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는 이¹¹⁾와 신¹²⁾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에서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노후 준비 및 의식 정도 10문항, 신체적 준비 9문항, 정서적 준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평점척도(rating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 의식정도가 높거나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노후 준비 및 의식 Cronbach $\alpha=0.634$ 이었고, 신체적 준비 Cronbach $\alpha=0.709$, 정서적 준비 Cronbach $\alpha=0.757$ 이었다.

3.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 11.5 software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여부를 판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 α 검정하였고, 응답 대상자의 노후 준비 및 의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검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및 의식은 t-검정, Kruskal-Wallis 검정하였고, 노후 준비 정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에 1980년 대생이 49.0% 30대가 가장 많았고, 미혼 68.5%, 가족 구성원 수는 4명 33.5%, 학력은 전문대졸 58.9%, 종교는 무교 49.0%, 근무경력 7년 이상 41.5%, 근무지는 치과의원 42.0%,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59.0%,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33.5%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는 140점 만점에 89.75 ± 11.74 점이었고, 평균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3.21 ± 1.18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3.72 ± 1.1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	%
Year of birth	1960s	11	5.5
	1970s	46	23.0
	1980s	98	49.0
	1990s	45	22.5
Marital status	Single	137	68.5
	Married	63	31.5
The number of children	None	16	25.4
	1 person	21	33.3
	2 persons	20	31.7
	More than 3 persons	6	9.5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25	12.5
	2 persons	22	11.0
	3 persons	45	22.5
	4 persons	67	33.5
	More than 5 persons	41	20.5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116	58.0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65	32.5
	Graduation as masters	14	7.0
	Graduation as doctors	5	2.5
Religion	Catholic	35	17.5
	Christianity	49	24.5
	Buddhism	18	9.0
	No religion	98	49.0
Employment history (Including the whole workplace)	> 1 year	36	18.0
	1 year > 3 years	25	12.5
	3 years > 5 years	25	12.5
	5 years > 7 years	31	15.5
	< 7 years	83	41.5
The workplace	Dental clinic	84	42.0
	Dental hospital	42	21.0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66	33.0
	Health center and others	8	4.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14	7.0
	So so	68	34.0
	Very healthy	118	59.0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4	2.0
	100 - 199 million won	28	14.0
	200 - 299 million won	38	19.0
	300 - 399 million won	33	16.5
	400 - 499 million won	30	15.0
	500 million won <	67	33.5
Total		200	100.0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 63 persons

Table 2. The scores of preparation for old age

Category(score)	Mean±SD	Item Mean±SD
Awareness about preparation for later life(50)	37.2±4.65	3.72±1.10
Physical preparation(45)	26.4±5.38	2.94±1.16
Emotional preparation(45)	26.1±5.37	2.91±1.11
Total(140)	89.75±11.74	3.21±1.18

Table 3. Awareness about preparation for old age

Items	Mean±SD
1. I am preparing living expenses for old age	3.62±1.08
2. I am thinking of other jobs to prepare retirement age.	3.19±1.13
3. I make efforts to have health information or knowledge related to later life.	3.25±1.01
4. I am interested in and make efforts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ed to later life.	3.27±0.88
5. Economic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when I am young is desirable.	4.42±0.74
6. It is good that living expenses necessary for old age was prepared by myself rather than relying on others.	4.47±0.69
7. Bank deposits or installment savings are positively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method for later life.	4.47±0.72
8. Purchase of real estate or investment in stocks to prepare later life is good as the methods to accumulate property.	3.19±1.05
9. The citizens pension system is positively necessary for stable later life.	3.39±1.20
10. It is desirable to join private pension systems because the amounts of citizens pension system are not sufficient.	3.94±0.97

Table 4. Physical preparation of dental hygienists

Items	Mean±SD
1. I release stress immediately.	2.83±0.98
2. I try to have health information or knowledge related to old age.	3.08±0.99
3. I regularly exercise.	2.43±1.02
4. I don't overeat for healthy life.	2.54±1.02
5. I usually have tonics, health foods, or nutritional supplements.	2.63±1.23
6. I have regular checkups.	2.80±1.20
7. I avoid drinking and smoking.	3.79±1.22
8. I am watching my weight to prevent adult diseases.	3.03±1.07
9. I properly sleep.	3.26±1.04

Table 5. Emotional preparation of dental hygienists

Items	Mean±SD
1. Readiness of mind is now being arranged for my happy later life.	2.93±1.01
2. I try not to be stressed out for emotionally comfortable life of later life.	2.77±1.06
3. I make efforts to participate in meetings with my friends for my friendship in later life.	3.29±0.98
4. I am preparing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in later life.	2.42±0.97
5. I am preparing hobby activities for later life.	2.65±1.05
6. I always have friends to talk opening myself.	3.91±0.99
7. I strive to develop my strength and ability recently.	3.04±1.00
8. I make efforts to develop my strength to stand the solitude for later life.	2.55±0.96
9. I don't fear death because I believe that there is an afterlife.	2.61±1.19

점, 신체적 준비는 2.94±1.16점, 정서적 준비는 2.91±1.11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1.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노후에 필요하게 될 생활비는 누구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4.47±0.69점 “노후 대책 방법으로 은행예금 또는 적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4.47±0.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의 정년에 대비하여 다른 직업을 구상하고 있다” 3.19±1.13점 “노후 생활에 대비하여 부동산 구입 또는 주식투자

를 하는 것은 재산증식방법으로 좋다” 3.19±1.05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2.2. 신체적 준비

노후를 대비한 신체적 준비를 살펴보면, “나는 음주, 흡연을 피한다”가 3.79±1.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가 2.43±1.02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4>.

2.3. 정서적 준비

노후를 대비한 정서적 준비를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가 3.91±0.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노후에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가 2.42±0.97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5>.

을 살펴보면, 1960년대의 치과위생사들이 41.82±2.9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p=0.03), 결혼상태(p=0.25), 학력(p=0.10), 주관적 건강상태(p=0.4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Table 6. Awareness about preparation for old 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ean±SD	T/ χ^2	p-value*
Year of birth	1960s	41.82±2.96	13.81	0.003
	1970s	36.59±5.74		
	1980s	37.18±4.03		
	1990s	36.67±4.49		
Marital status	Single	36.69±4.18	-2.26	0.025
	Married	38.27±5.40		
The number of children	None	37.13±6.85	2.70	0.440
	1 person	37.86±4.16		
	2 persons	39.70±3.59		
	More than 3 persons	38.00±9.49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37.68±4.82	1.72	0.788
	2 persons	36.27±6.64		
	3 persons	37.62±3.92		
	4 persons	36.96±4.27		
	More than 5 persons	37.27±4.75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36.69±4.39	11.26	0.010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37.29±4.80		
	Graduation as masters	38.79±5.22		
	Graduation as doctors	42.80±2.77		
Religion	Catholic	38.20±4.19	2.03	0.567
	Christianity	37.04±4.82		
	Buddhism	36.89±3.77		
	No religion	36.95±4.87		
Employment history	> 1 year	37.36±4.32	3.95	0.412
	1 year > 3 years	35.64±4.64		
	3 years > 5 years	37.16±3.67		
	5 years > 7 years	37.23±3.36		
	< 7 years	37.57±5.40		
The workplace	Dental clinic	37.25±4.79	7.45	0.059
	Dental hospital	36.12±3.95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37.39±4.86		
	Health center and others	40.38±3.5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38.36±2.95	6.25	0.044
	So so	36.07±4.48		
	Very healthy	37.69±4.81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36.00±5.10	5.89	0.317
	100 - 199 million won	35.50±4.11		
	200 - 299 million won	37.66±4.10		
	300 - 399 million won	37.85±4.47		
	400 - 499 million won	37.27±5.86		
	500 million won <	37.33±4.61		

*by t-test or Kruskal-Wallis test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준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체적 준비를 보면, 1960년대 치과위생사들이 32.64±4.27점, 기혼자가 28.13±5.48점, 박사학위 졸업자가 32.20±4.5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p=0.01), 결혼상태(p=0.02), 학력(p=0.01), 근무지(p=0.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7>.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준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정서적 준비를 보면, 1960년생 치과위생사들이 31.82±4.53점, 석사학위 졸업자가 30.50±4.3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p=0.01), 학력(p=0.04), 근무지(p=0.06), 주관적 건강상태(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8>.

Table 7. Physical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ean±SD	T/χ ²	p-value*
Year of birth	1960s	32.64±4.27	20.58	0.001
	1970s	27.37±4.74		
	1980s	26.10±5.04		
	1990s	24.62±5.77		
Marital status	Single	25.64±5.16	-3.11	0.002
	Married	28.13±5.48		
The number of children	None	27.38±5.85	0.59	0.899
	1 person	28.19±5.24		
	2 persons	28.25±5.89		
	More than 3 persons	29.50±4.81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26.80±5.64	4.94	0.294
	2 persons	26.23±6.73		
	3 persons	27.67±5.41		
	4 persons	25.52±5.18		
	More than 5 persons	26.39±4.60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25.41±5.33	18.63	0.001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26.78±4.90		
	Graduation as masters	31.00±4.61		
	Graduation as doctors	32.20±4.55		
Religion	Catholic	25.23±6.05	7.15	0.067
	Christianity	28.14±4.95		
	Buddhism	26.39±5.00		
	No religion	25.99±5.27		
Employment history	> 1 year	24.64±6.26	9.24	0.055
	1 year > 3 years	25.76±4.03		
	3 years > 5 years	26.68±4.44		
	5 years > 7 years	25.77±5.58		
	< 7 years	27.55±5.34		
The workplace	Dental clinic	26.07±5.77	10.11	0.018
	Dental hospital	25.88±4.61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26.61±5.34		
	Health center and others	31.38±2.5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26.93±4.68	4.67	0.097
	So so	25.12±5.37		
	Very healthy	27.11±5.36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27.50±5.45	10.22	0.069
	100 - 199 million won	23.57±6.20		
	200 - 299 million won	26.97±4.92		
	300 - 399 million won	25.39±4.83		
	400 - 499 million won	28.23±4.65		
	500 million won <	26.93±5.45		

*by t-test or Kruskal-Wallis test

Table 8. Emotional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ean±SD	T/χ2	p-value*
Year of birth	1960s	31.82±4.53	16.55	0.001
	1970s	24.87±5.39		
	1980s	25.62±4.86		
	1990s	27.20±5.69		
Marital status	Single	25.75±5.10	-1.53	0.127
	Married	27.00±5.86		
The number of children	None	27.06±6.72	4.46	0.216
	1 person	25.10±5.04		
	2 persons	27.65±5.58		
	More than 3 persons	31.33±5.65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26.04±4.64	2.12	0.713
	2 persons	26.27±7.43		
	3 persons	25.67±5.63		
	4 persons	25.85±4.68		
	More than 5 persons	27.15±5.39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ion from colleges	25.66±5.66	13.44	0.004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25.94±4.75		
	Graduation as masters	30.50±4.31		
	Graduation as doctors	28.00±3.67		
Religion	Catholic	26.11±5.52	2.58	0.461
	Christianity	26.94±4.94		
	Buddhism	24.56±4.38		
	No religion	26.05±5.67		
Employment history	> 1 year	27.33±6.57	6.76	0.149
	1 year > 3 years	26.72±4.61		
	3 years > 5 years	26.48±4.74		
	5 years > 7 years	24.06±3.91		
	< 7 years	26.13±5.54		
The workplace	Dental clinic	25.36±5.45	12.49	0.006
	Dental hospital	25.19±4.64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s	27.62±5.67		
	Health center and others	27.25±2.55		
Subjective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24.86±4.61	18.16	0.001
	So so	24.41±5.37		
	Very healthy	27.30±5.18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 100 million won	26.00±8.29	7.59	0.180
	100 - 199 million won	24.71±5.12		
	200 - 299 million won	25.66±4.81		
	300 - 399 million won	25.64±6.07		
	400 - 499 million won	26.23±5.37		
	500 million won <	27.24±5.21		

*by t-test or Kruskal-Wallis test

6. 노후 준비 정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후 준비 의식과 노후준비 하위 영역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계수를 보여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후 준비에 대한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

비는 상관계수 0.507(p<0.001)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9>.

총괄 및 고안

노년기를 대략 65세부터라고 정의하면 평균수명의 연장

Table 9. Correlation between readiness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Physical preparation	Emotional preparation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Physical preparation	0.209**		
Emotional preparation	0.380**	0.507**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으로 노년기는 인생에서 긴 주기를 뜻한다. 노후는 더 이상의 여생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며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또한 은퇴 후의 생활이 은퇴 전의 생활보다 더욱 행복해야 할 이유는 은퇴 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정년이라는 것이 없으며 함께 공존해야 한다. 병·의원급의 낮은 보수와 복지제도는 노후 생활을 위한 대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생활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은퇴계획 및 개인에 맞게 단계적인 노후 생활 준비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1980년대 출생년도(30대 초반)의 치과위생사들이 49.0%로 가장 많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혼이 68.5%로 기혼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치과라는 직장의 복지문제와 국가적인 문제로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여자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보건 의료국가시험원 자료¹³⁾에 따르면 2011년 4,185명, 2012년 4,632명, 2013년 5,093명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 사회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치과라는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인력 활용도의 문제가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기혼자들의 파트타임 활용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에서 치과위생사들은 노후에 본인 스스로 젊었을 때부터 생활비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 대책 방법으로는 예금 및 적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직업을 구상하고 있는 정도는 낮았음을 보여 주었다. 치과위생사의 신체적 준비에서는 음주, 흡연을 피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¹¹⁾의 서울시 공공의료원 중사 간호사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의 결과 유사하였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사 모두 간호·보건 인력이라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 결과라 보여 진다. 또한 기술과 지성을 겸비한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 사료되어 진다. 반면 정서적 준비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가 높게 나타나 간호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족관계 외에 동호회, 봉사모임 등을 통해 재능 기부 및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노후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140점 만점에 89.75점이었고, 평균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노후 준비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별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3.72점으로 전체 평균 평점 보다 높았다. 반면 신체적 준비 2.94점, 정서적 준비 2.91점으로 전체 평균 평점 보다 낮았다. 한¹⁴⁾의 간호사 연구결과는 신체적 준비 2.83점, 정서적 준비 3.41점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와 신체적 준비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정서적 준비에서는 간호사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김¹⁰⁾의 치과위생사의 연구결과에서는 신체적 준비 2.97점으로 유사하였으나, 정서적 준비는 3.59점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신체적 준비는 이루어지고 지고 있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운동 및 정기검진 등 노후 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노후 준비 및 의식,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공통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¹⁵⁾의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¹⁶⁾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및 사회에 의존하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꾸준한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후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다.

대상자의 노후 준비 정도와 노후 준비 의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후 준비 의식과 노후 준비 하위 영역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수를 보여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후 준비에 대한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노년기에는 한

가지의 준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준비들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진다.

성공적 노후에 대해 Laditka 등⁷⁾은 민족, 인종 구별 없이 공통으로 장수, 육체적 건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적 상태, 정신적 명료성,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라고 하였다.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노후에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성공적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의 치과위생사들의 설문 내용을 모든 치과위생사의 결과라고 일반화하기 어려움 점이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전체 치과위생사를 바탕으로 노후에 새로운 직업군의 개발과 퇴직 후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다.

결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당연 노인문제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년기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최종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 정도는 140점 만점에 89.75점이었고, 평균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3.72점, 신체적 준비는 2.94점, 정서적 준비는 2.91점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은 1960년대 치과위생사들이 가장 높았으며, 출생년도, 결혼상태,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과위생사의 신체적 준비는 1960년대 치과위생사와 기혼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높았으며, 출생년도, 결혼상태, 학력, 근무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치과위생사의 정서적 준비는 1960년대 치과위생사와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자,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가 높았으며, 출생년도, 학력, 근무지,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노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Statistics DB, Statistics[Internet]. [cited 2014 Oct 1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
2. Statistics Korea.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Statistics DB, Statistics[Internet]. [cited 2014 Oct 14].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3. Park KR, Lee YS. A study on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 Ger* 2002; 22(3): 53-66.
4. Lim MJ. A survey research on attitudes of Korean nurses regarding provision for old age[Mater's thesis]. Seoul; Univ. of Kyung Hee, 2006.
5. Bae MJ. Perception of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and successful aging by degree of facts on aging among adults. *J Wel Aged* 2012; 8: 111-31.
6. Song KB, Jeong SH, Chung SY, Park YD, Kwon HK, Choi YH. Attitude and planning for retirement by Korean dentist. *J Korea Acad Oral Health* 2010; 34(2): 139-49.
7. Kim JH, Kim SJ, Hwang JH, Yoo SM, Park YD. Problem awareness of old age among dentist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J Korea Acad Oral Health* 2012; 36(3): 203-10.
8. Kim SD, Lee YK, Lee JW. A Paper of the perception of some dental hygienists regarding old life after retirement and occupations. *J Korea Soc Dent Hyg* 2010; 12(2): 97-108.
9. Kim MY, Kim SJ, Kim JH. Preparation for old age life of dental hygienists. *J Con Soc* 2014; 14(8): 250-6.
10. Kim JH. A Study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Retirement Plans among Dental Personnels[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Kyung Hee, 2013.
11. Lee JJ. A Study the on nurse's preparation for their own old age-focused on the public medical center in Seoul[Ma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11.
12. Shin SH.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Mater's thesis]. Busan; Univ. of Kungsung, 2013.
13.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 Kuksiwon[Internet]. [cited 2014 Oct 14]. Available from: <http://www.kuksiwon.or.kr/Information/ExamStatistic.aspx>.
14. Han MR.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nurses about the preparation and successful life for old age[Mater's thesis]. Seoul; Univ. of Catholic, 2009.
 15. Lee M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plan of retirement in nurses[Mater's thesis]. Busan; Univ. of Kosin, 2013.
 16. Kim HJ. A study on the preparation consciousness and counterplan of the young and middle-aged for old age life focusing on the young and middle-aged living in Busan[Mater's thesis]. Busan; Univ. of Dong-A, 2010.
 17. Laditka SB, Corwin SJ, Laditka JN, Liu L, Tseng W, Tsemg B, et al. Attitude about aging well among a diverse group of older Americans: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gnitive health. *The Gerontologist* 2009; 49(S1): S30-S9. <http://dx.doi:10.1093/geront/gnp084>.